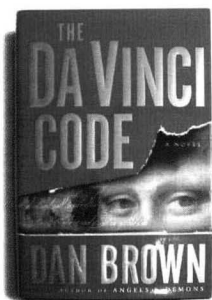


미국출판계를 흔든 메가 베스트셀러 《The Da Vinci Code》의 파급효과

글 | 허선

• 댄 브라운의 《The Da Vinci Code》는 그동안 숨겨져 온 고대 역사의 비밀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을 통해 풀어나가는 스릴러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탄탄한 구성력, 금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 그리고 미술, 역사, 종교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연계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The Da Vinci Code》 열병을 불러온 것이다.



요즘 미국의 독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찾느라 분주하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에 숨겨져 있던 지난 2000년간의 거대한 음모가 막 풀리려는 찰나이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The Da Vinci Code》는 스릴러의 대가인 존 그리샴도 톰 클랜시도 아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댄 브라운 Dan Brown의 작품이다. 베스트셀러라고 불리기보다는 메가 베스트셀러라고 불리는 《The Da Vinci Code》는 종교, 역사, 미술 등이 책과 관련된 분야에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댄 브라운은 암허스트 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작가가 되기 전까지 뉴햄프셔 주에 위치한 필립스 엑세터 아카데미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했다. 암호해독과 비밀정보기관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1996년 민간인의 사생활과 국가비밀기관과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파헤친 《Digital Fortress》를 출간하게 된다. 이 소설은 출간 직후 ebook 베스트셀링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두 번째 작품은 정치, 국가기밀, 극비의 테크놀로지 등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 문제를 다룬 테크노 스릴러 《Deception Point》다. 저명한 수학자인 아버지와의 종교음악 전문가 어머니 사이에서 일찍이 과학과 종교의 역설적인 원리를 접하게 된 댄 브라운은 스위스 물리학 연구소와 바티칸 시 사이의 갈등을 다룬 스릴러 《Angels & Demons》를 발표하면서 드디어 작가로서 인정받게 된다.

그의 네 번째 소설인 《The Da Vinci Code》는 두 주인공인 하버드 대학교 기호학자 로버트 랭돈과 프랑스 암호해독자 소피 네부와 함께 독자들이 책 속의 암호들을 풀어가도록 구성하고 있다. 강연차 파리에 머물던 로버트 랭돈은 늦은 밤 긴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경찰의 요청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한 로버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200만 달러 상당의 까라바치오 Caravaggio의 그림과 알몸으로 양팔과 양다리를 벌린 채 다 빈치의 비트루비안 맨 The Vitruvian Man을 연상하게 하는 시체, 그리고 시체 위에 그려진 상징. 이는 거대한 역사의 비밀이 숨겨진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림으로 연결된다.

루브르 박물관 살인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깨달은 두 주인공은 암호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 홀리 그레일 Holy Grail의 정체와 그와 연계된 집단들 십자군 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띤 시운수도원

(The Priory of Sion : 1099년에 설립된 유럽 비밀단체. 1975년 파리의 비브리오페르 나쇼날에 의하면 <레 도시에르 세끄레트>라는 문서 속에 이삭 뉴턴, 보티첼리, 빅토르 휴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이 단체의 구성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과 가톨릭의 신보수주의 거점인 오프스 데이(Opus Dei : 종교적 자해, 쇠뇌, 강요 등으로 악명을 떨친 극렬 가톨릭 집단) 사이의 전쟁 속에 빠져 들게 된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의문과 질문,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하게 하며 숨겨진 비밀에 한층 더 다가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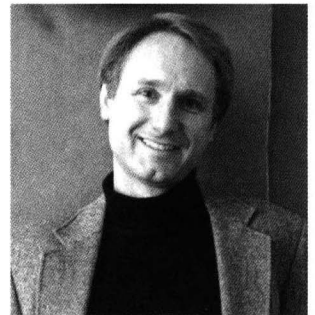
이 소설의 매력은 사실에 토대를 둔 고대 역사와 비밀단체, 숨겨진 암호들 등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이 소설을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 조사와 더불어 미술 사학자, 과학자 그리고 오프스 데이 멤버들과의 인터뷰는 물론 이 작품 속의 각종 언어 놀이, 수학공식 그리고 종교적 상징들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이러한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소설 첫 페이지를 사실(fact)이라고 밝히면서 시작한다. 여기에는 시온수도원과 오프스 데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소설에 소재로 사용된 예술작품, 건축물, 자료들 그리고 비밀의식들의 설명들은 모두 정확한(accurate)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사실을 기본으로 구성된 소설은 큰 관심을 불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작년 11월 초에 <Jesus, Mary and Da Vinci>라는 제목으로 ABC 뉴스 스페셜을 통해 방영되었다. 지난 2000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를 따르기 위해 그녀의 죄악스러운 삶을 포기한 여인으로 불리온 가톨릭과는 대조적으로 댄 브라운은 그의 소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아내이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 예수의 자녀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단언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 이야기가 수세기 동안 자신의 그림들에 실마리를 숨겨놓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를 포함한 비밀단체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BC 뉴스 리포터 엘리자베스 바거스(Elizabeth Vargas)는 이러한 댄 브라운의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지중해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쪽 끝까지 다녔다. 그녀는 댄 브라운의 모든 주장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들은 진실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방송을 통해 밝혔다.

이런 논쟁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댄 브라운의 《The Da Vinci

- 이 글을 쓴 허선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평화출판사, 진선출판사에서 근무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출판학을 전공했다. 논문으로는 <도서 및 저작권의 수출입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현재 미국에서 미국출판마케팅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저자 댄 브라운



by Daisy Maryles

behind the bestsellers

Veni, Vidi, DaVinci
All hail Dan Brown! He came, saw and conquered the national charts, making it to the #1 spot after only about a week in the marketplace—and he did so without any previous time on any national list. *The Da Vinci Code*, his fourth book, had a one-day laydown and a first printing of more than 2.18,000 copies; now, after four trips to press, that number is up to 262,000. In fact, Doubleday notes that customers bought as many hardcover copies in two days as Brown's earlier books have netted in total. Doubleday's explanation for Brown's success this time is that "the stars aligned." What that means, according to Suzanne Herz, v.p., associate publisher and executive director of publicity, is that the author "delivered a tremendous book; our sales force poured their heart and soul into getting booksellers to read it; and the booksellers, in turn, fell in love with the book and the author." The book is doing very well at the independents, the chains and the clubs. Herz reports that front-of-the-store placement has been unprecedented for an author with little or no track record. For details on how this buzz was built, check out *PW's* Book News story (Jan. 27) aptly called "Code Word: Breakout."

Same Name, but...
Last fall, publisher Miramax and Queen Noor agreed to postpone her book *Leaps of Faith: Memoirs of an Unexpected Life* because of the growing conflict in the Middle East. Publication date was moved from November 2002 to March 18, 2003. No one imagined that the book and Gulf War II would coincide. By the time President Bush issued his 48-hour deadline for Saddam Hussein, the publisher had already shipped the book; an account of Noor's 21-year marriage to Jordan's King Hussein. Noor was able to do some national media before the war began, but, like almost all authors on the publicity circuit, appearances were bumped for war coverage. Some non-news shows (Diane Rehm and Charlie Rose among them) did interviews with the queen, giving her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humanitarian efforts she is involved with. First printing was 150,000 and has made stable regents book that number to 180,000. Proceeds from the book go to the King Hussein Foundation—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funding for Middle East health services and offers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peace and democracy.

Suitable for Hardcover
Back in 1972, Kathleen Woodiwiss launched the romance paperback boom with *The Flame and the Flower*, published by Avon Books (when looking for a paperback publisher, Woodiwiss reportedly started with the A's). She went on to write 10 more romances, with sales of more than 36 million worldwide. Like all authors, Woodiwiss had always wanted to be in hardcover, and her editor, Carrie Feron, was convinced that *The Reluctant Suitor* was the right book. Avon's sister publisher, Morrow, published the hardcover with a first printing of 325,000. Feron was right—*Suitor* debuts at #7 on *PW's* list.

Whoops—We Forgot Warner
Unfortunately, in our feature last week (Mar. 24) on the paperback bestsellers of 2002, we left out Warner's mass market titles. The publisher had six with sales of more than 500,000 copies, and that changes an observation we made. We noted that back in 1990, there were 123 mass market titles with sales of more than one million copies, and that in 2002, there were 107 mass markets with sales of 500,000+. The new figure for last year is 113; that includes 52 titles with sales of more than one million copies in 2002. In order, Warner's top sellers: *1st to Die* by James Patterson (1,710,323 copies sold in 2002); *Violets Are Blue* by James Patterson (1,605,733); *Last Man Standing* by David Baldacci (1,122,259); *A Bend in the Road* by Nicholas Sparks (1,116,110); *Envy* by Sandra Brown (958,781); and *The Millionaires* by Brad Meltzer (780,687).

- 《The Da Vinci Code》를 소개하고 있는 미국 주간지. 종교, 역사, 미술 등 책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 논란을 일으키며 믿지 못할 성공을 거두고 있다.

Code》가 메가 베스트셀러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기록적인 판매량 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서점으로 끌어내고 있는 마력 때문이다. USA Today는 저조한 올해 서적판매에도 불구하고(미국출판사 협회에 의하면 성인 하드커버 판매량 6퍼센트 감소, 페이퍼백 4퍼센트 감소) 《The Da Vinci Code》는 출간 직후부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계속 머물고 있는 동시에 2003년 그 어떤 베스트셀러 성인소설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오직 《Harry Potter and Order of the Phoenix》만이 이 책의 판매량을 능가하고 있다. 또한 출간된 지 9개월 만에 480만 부를 인쇄하고, 공식 연말판매 시작을 알리는 추수감사절 주에는 약 6만6,000부 이상 판매했다. 이는 지난 5년간 같은 기간의 그 어떤 소설보다도 많은 판매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거의 8만 부를 판매했다(미국의 대형체인서점 3곳 Barnes & Nobles, Borders, Waldenbooks 판매기록 기준). 《The Da Vinci Code》를 출판한 더블데이 Doubleday의 스테판 루빈Stephan Rubin은 적어도 2005년 내지 2006년까지는 페이퍼백 출판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양장본 판매가 순조롭고, 먼저 양장본으로 600만 부를 인쇄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기록을 깨기 위해서다.

또한 《The Da Vinci Code》의 성공은 그의 전작들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려놨고, 관련서적들의 판매 또한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퍼블리셔스 위클리Publishers Weekly 페이퍼백 베스트셀러 리스트를 살펴보면, 포켓북스Pocket Books에서 출간된 《Angels & Demons》와 《Deception Point》는 35주, 15주 연속 매스마켓Massmarket 차트에 머무르고 있고 그의 첫 소설 《Digital Fortress》(St. Martin's에 의해 출간)는 12월 둘째 주에 트레이드페이퍼Trade paper 차트에 등장하였다. 이 책은 3월에는 페이퍼백 1만7,000부 인쇄하였으나, 12월에는 26만6,000부 그리고 이번 달에는 100만 부의 매스마켓 보급판이 인쇄될 예정이다. 덴버 Denver의 태터드 커버Tattered Cover서점의 책 구매자 캐시 랜저 Cathy Langer는 “책을 주문해서 쌓아놓으면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걸 보니 댄 브라운의 책은 마치 무엇이든 녹여내는 용광로 같다”며 놀라워했다.

게다가 《The Da Vinci Code》에 매료된 독자들이 서점으로 몰리면서 소설, 비소설, 종교, 역사, 미술 등 《The Da Vinci Code》 관련 서적들 또한 판매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다. Barnes & Nobles에서 서적 구매자로 20년간 근무한 시실리 섀슬리Sessalee

Hensley는 “다른 소설은 그 소설만 잘 팔리다 사라지는 경향이 큰데 이번 경우는 특별하다”며 “《The Da Vinci Code》와 관련된 90종 정도의 서적 판매량이 25퍼센트 정도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한 예로 《Holy Blood, Holy Grail》과 《The Woman in the Alabaster Jar》는 12월 퍼블리셔스 위클리 종교부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그 중 후자는 1993년 Bear & Co.,Ltd에서 출간된 후 10년 동안 2만 부 정도 판매되었으나, 댄 브라운의 책에 언급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만 3만5,000부 이상을 판매했다고 한다. 또한 《Holy Blood, Holy Grail》의 여러 작가 중 한 명인 헨리 링컨 Henry Lincoln이 11월 ABC special 코너에서 《The Da Vinci Code》와 관련해 인터뷰한 게 방영된 후 이 책은 판매율이 매주 20~30퍼센트 증가했으며, 이 책의 출판사인 더 델 북The Dell Book은 29쇄 이후 50만 부를 다시 인쇄했다고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여러 서점에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일대기, 루브르 박물관과 르네상스 미술 가이드, 그리고 프리메이슨 등 댄 브라운의 책을 중심으로 한 전문 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댄 브라운의 《The Da Vinci Code》는 그동안 숨겨져 온 고대 역사의 비밀을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을 통해 풀어나가는 스타일로 충분한 연구와 자료조사를 토대로 한 탄탄한 구성력, 금기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 그리고 미술, 역사, 종교 등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연계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The Da Vinci Code》 열풍을 불러온 것이다. [14]

* 미국에서는 서적이 크게 하드커버Hard Cover와 페이퍼백Paperback으로 나뉘고, 페이퍼백은 또 매스마켓페이퍼mass market paper와 트레이드 페이퍼trade paper로 나뉜다. 트레이드 페이퍼backtrade paperback은 양질의 페이퍼백이나 소프트 북커버를 말하며, 매스마켓페이퍼백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보급판으로 보통 잡지 옆에서 판매된다.

